



○6일 서울 하림각에서 열린 제4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에서 토론자들이 분야별 추진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토론회 내용

유아, 노인, 장애인 등 불교복지 취약 분야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불교 사상과 이념을 복지 현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됐다.

5일 서울 하림각에서 열린 제4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토론회 및 이날 배포된 <조계종 사회복지 창간호> 내용을 종합한 결과 불교 유아 복지의 향상을 위해 불교 이념이 내재화된 교육환경 구성,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복지의 경우에는 의식개혁 운동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불교 유아 복지의 경우, 언어와 독

서 영역, 수 및 과학 영역, 조각 및 미술 영역에서 어린이들이 쉽게 불교문화와 사상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대원스님(동국대 유아교육학과 교수)은 이날 복지대회에서 발표한 '불교유아교육 사상과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나치게 종교 위주의 교육은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인격과 개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교리 위주의 교육보다는 흥미롭고 자연스럽게 불교를 만날 수 있는 놀이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놀이와 인연이 돼 발상을 낼 수 있는 대안 프로그램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 유아 복지
- 노인 복지
- 장애인 복지

놀이 위주 불교교육방법 개발을 동호회 중심 조직 활성화가 과제 통합 명상교실·재활 프로그램 필요

불교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고행자를 위한 프로그램, 노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대기 적체현상 해소, 노인 동호회 중심의 조직 활성화 등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농인스님(일산노인복지관장)은 '불교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종교색이 강한 프로그램은 이용자들이 거부감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조계종 사회복지 창간호>에 실린 사례별 평가 결과에서도 종교에 관계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나 장애 문화와 본도 문화 개선 등 가치중립적 노인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 장애인 복지 개선을 위해서는 장애인을 바로 바라보는 의식 개혁운동과 장애인들이 불교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됐다.

해성스님(광림사 연회복지원장)은 토론회에서 불교 사상에 기반을 둔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인 '통합 명상교실'이나 장애인들의 재능을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또한 스님은 "전국 유명 사찰에 장애인을 위한 전용 차량 배치,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는 것과 불교 교리를 수화로 전달할 수 있는 포교사 양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교 사상과 이념을 복지 프로그램에 접목시키기 위한 이번 연구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대일이 설립된 지 7년 만에 처음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불교계 사회복지자들은 평가했다.

강유신 기자 shanin@buddhapia.com

“달라이라마 방한 국익 고려 돼야”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 '신동아' 인터뷰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사진)이 최근 발행된 <신동아(12월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불교관을 비롯해 해인사 대불전립 문제, 스님들의 림살롱 출입사건 등 불교계 내부문제와 대선·대북·연론 문제 등 정치·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특히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직설적이라는 점에서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포도나무'이라는 제목의 인터뷰에서 정대스님은 달라이라마 방한 문제와 관련해 "반대는 하지 않지만 국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해인사 청동대불 건립에 대해서는 "불교계의 물질문명주의와 물질화를 경계하는 것은 옳지만, 그때그때 역사적으로 떨어지는 과제를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막

는 '세상에 얽매어 하기에 당할 건 당해야지, 그게 피하겠다고 피해지는가, 인간은 고가 있어야 행복하다. 시련이 없는 세상은 행복이 없다. 시련 없는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정치 사회문제와 관련한 이야기 중, IP와 관련해서는 "대의 위해 참을 줄 아는 유능한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이화영 후보 집권시 최대의 정치보복 발언에 대해서는 "소신발언이었으며, 심심하다고 한 얘기다. 그래서 지금은 너그러워지지 않았는가, 아들 병역 문제는 5년 전 이미 검증됐다. 문제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청문회 후보인터뷰는 후보 단일화 이전에 이뤄졌다는 평가를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공도 안 들어고 그냥 주

정치 악순환 막게 대통령 중임제를 해인사 청동대불 시주자가 원하면 건립 가능 스님들 림살롱 출입 타락으로 안봐

을 수는 없다"며 시주자가 원하는 불사를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스님들 림살롱 출입사건에 대해서는 "타락이라고 보지 않는다. 세속 사람들은 자기네가 하루라도 없으면 못 사는 것만 스님들에게 지키길 요구한다. 같이 환전 먹고 횡령기도 해야 속에 있는 얘기도 하고 세상이 혼탁하니 종교계도 혼탁하다"고 말했다. 스님의 길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은 없다. 다시 태어났으면 이 길 안 간다. 증노릇 해보니 불교라는 자유가 나를 속박하고 종교라는 자유가 오히려 나를 속박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났으면 종교라는 미명하에 자유마저 속박하는 길은 안 가겠다. 자유인이 돼 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위 먹으려는 풍토는 좋지 않다. 참고 때를 기다리는 자가 이기리라고 본다. 대통령 하고 싶으면 공을 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햇볕정책과 김정일 방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시 정도가 아니라 국민과제로 여기고 있다. 김정일이 남한에 못 올 이유가 없다"는 소신을 밝혔다.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세무조사 지지한 적 없다. 원칙대로 해야 하지만 언론이 성장하는 과정에 국제까지 물리던 언론다운 언론이 황송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현 정권에 대해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질문에는 "단임제는 아무리 유능한 대통령이라도 막판에 일 난다. 정치적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중임제가 필요하다. 인사권중 문제는 잘못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관련기사 4면> 한명우 기자

불교계 요구사항	한나라당 공약	민주당 공약
북한산 관동도로 및 경부고속철의 현 노선 폐기	한 노선 백지화 및 대안노선 검토	한 노선 백지화 및 대안노선 검토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 및 문화재 행정조직 일원화	문화재청장 차관급 승격, 국가문화유산사 설립	문화재청 차관급 승격, 국가문화유산사 설립
항공사·미해사 복원	전통사찰 복원 위한 법적 대책 마련	항공사·미해사 복원 국가사업으로 추진
검찰청·경찰청내 문화재사범전담반 설치 및 문화재보호법 개정	문화재 관련법 제·개정	검찰청·경찰청내 전문적이고 상설화된 문화재사범 전담반 설치
조계사 문화지구 지정 및 우정국로 전통문화거리 조성	조계사 문화지구 지정 및 흥남산성역화 지원	조계사 문화지구 지정과 동시에 우정국로 전통문화거리로 조성
불교문화재 보존관리정책 수립 및 예산 지원 확대	불교문화유산 관리에 불교계 참여 및 불교문화재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불교문화재 보존 및 관리 예산 현실화, 문화재사찰 방범·방화시설 설치 의무화
고려 궁궐지 인사 종교간 협력성 강화	특정종교 편향 또는 개인적 종교색 드러내는 행위 규제	불교계 입장 대변할 수 있도록 정부산하기구에 불교계 추천인사 참여 배려
군·내 군공장교의 인사 형평성 유지	군공장교 출신 및 계급별 정원까지 종교별 차별 없도록 관련 규정 개선 유도	군공장교 출신 및 계급별 정원까지 종교별 차별 없도록 관련 규정 개선 유도
불교 청소년단체 육성	청소년 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 추진, 불교청소년 수련관 위탁운영사업 시범실시	청소년 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 추진, 불교청소년 수련관 위탁운영사업 시범실시
불교방송 지방국 추가 개국 지원	지방방 확대 지원	지방국 추가 개국 지원
불교선문문화의 정보화 지원	정보화 지원 확대 및 불교 정보화 시스템 구축 지원	정보화 인프라 구축 지원
사찰 수명환경 보호 위한 법령 개정	전통사찰보존법 등 관련법 제·개정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생명과 환경 보전 위한 관련법 및 제도 개선	환경영향평가법·자연공원법·도시공원법 제·개정	도시공원법 등 각종 규정의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명시
국립공원 효율적 보존위한 대책 강구	공인업장부 폐지 긍정 검토 및 국립공원 관리체계 개선	공인업장부 폐지 긍정 검토 및 국립공원 관리체계 개선
남북불교교류 지원 확대	북한 불교문화재 조사 및 복원, 남북 공동학술조사 지원 확대	북한 불교문화재 조사 및 복원, 남북 공동학술조사 지원 확대

문화재청 차관청으로 승격 한나라당 검찰청내 문화재사범 전담반 민주당 국가소유 불교문화재·폐사지 반환 등 반영 안돼

양당 불교계 공약발표

지난 11일 한나라당이 불교계 공약을 내놓은데 이어, 민주당도 4일 불교계 공약을 발표했다.

양 당 불교계 공약은, 공약발표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이 대선후보에게 제시했던 27가지 불교계 요청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다. △북한산 관동도로 및 경부고속철의 현 노선 폐기 △고위공직자 인사의 종교간 형평성 고려 △불교문화재 관리정책 수립 및 예산 지원 확대 △불교방송 지방국 추가 개국 지원 등 현재 또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대두돼 온 현안들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정책을 펴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그동안 불교계가 끊임없이 주장해 온 문화재청의 차관청 승격 및 공인업장부 폐지 긍정 검토를, 민주당의 경우에는 북한산 관동도로 노선 백지화 및 검찰청 내 문화재사범 전담반 설치를 각각 독자적인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양 당 모두 △국가 소유·점유

불교문화재 및 폐사지의 불교계 반환 또는 위탁 △전통사찰 보수 지원비 증액 및 각종 부담금 폐지 △국립공원 및 전통사찰 인근에서 행해지는 국력사업의 사전 협의 제도화 △달라이라마 방한 허용 및 협조 등 조계종이 요청했던 현안들에 대해서는 공약에 반영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한명우 기자 mhwan@buddhapia.com

깨보받습니다

한때 불교신앙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정보창출을 담당하고, 독자 여러분의 깨보를 기다립니다.

02) 722-4162, budhnews.com

꿈을 ★ 이루십시오!

정신력을 키우고 기운 나란다면 귀의 정도 현실이 됩니다.

천황한 부유함 / 건강 / 성취 그곳은 이미 꿈이 아닙니다.

쉽지만 강력한 프로그램을 아바타 체험해보십시오

귀의 소중한 정열을 이루십시오!

011) 606-1976 www.haesanavatar.com
02) 782-0022 www.sayavatar.com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새해맞이 기도

1. 새해를 맞으며 개인적으로 무엇을 발원하고 싶으십니까?
① 경제 호황 (2) 건강 (3) 가정화목 (4) 기타

2. 새해맞이 기도를 사찰에 가서 하실 생각입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설문 참여: 12월 12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와 현대불교 400호 A판 4면에 실습니다.

혜암당 성관 대종사 열반 1주기 추모제

혜암당 성관 대종사 열반 1주기를 맞이하여 법보종찰 해인총림에서 법전 중정예하를 모시고 추모제를 봉행코자 하오니 제방의 원로대덕 큰스님과 문도 및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일 시 : 불기 2546(2002)년 12월 20일(금요일)
(음 11월 17일) 오전 10시

■장 소 : 해인사 대적광전(큰법당)

■문의처 : 해인사 종무소 ☎ 055-931-1001~2
원담암 ☎ 055-932-7308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본사 **법보종찰 해인사**

증 명 : 중정 법전
봉행위원장 : 주지 세민
문도 대표 : 성법